

미니테스트 제 8 회

문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2020행언나-24

① 미국의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체제는 크게 시설계획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모범기준과 특정 시설의 화재안전평가 및 대안설계안을 결정하는 화재안전평가제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는 화재위험도평가제로 구분된다. 건축모범기준과 화재안전평가제는 건축물의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지침으로 적용되며, 화재위험도평가제는 기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 화재위험도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화재안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반해 미국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이 화재 관련 모범기준이나 평가제를 개발하고 주 정부가 주 상황에 따라 특정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건축모범기준은 미국화재예방협회에서 개발한 것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데 3년마다 개정안이 마련된다. 특정 주요 기준은 대부분의 주가 최근 개정안을 적용하지만, 그 외의 기준은 개정되기 전 기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미국화재예방협회가 개발하여 미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화재안전평가제는 공공안전성이 강조되는 의료, 교정, 숙박, 요양 및 교육시설 등 5개 용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성을 평가하고 대안설계안의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목적이 있다. 5개 용도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모범기준의 적용이 권고된다. 화재위험도평가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화재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이 중에서 뉴욕주 소방청의 화재위험도평가제는 공공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집된 주 내의 모든 정부 기관의 정보를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 ① 건축모범기준이나 화재안전평가제에 따르면 공공안전성이 강조되는 건물에는 특정 주요 기준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강제적 적용과 관련된 내용
- ② 건축모범기준, 화재안전평가제, 화재위험도평가제 모두 건축물의 설계·시공단계에서 화재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화재위험도평가제는 기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단계와 관련될
- ③ 건축모범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개정 전 기준의 기준을 따를 수도 있음.
- ④ 미국에서는 민간기관인 미국화재예방협회가 건축모범기준과 화재안전평가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 운영은 주 정부가 맡아서 진행함
- ⑤ 뉴욕주 소방청은 화재위험도 평가에 타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다.

문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019행언가-01

- ④ 1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중요 사건들을 정리한 기록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 이에 유네스코는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담긴 조선왕조실록 총 1,893권, 888책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 ① 2 실록의 간행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했다. 먼저, 사관이 국왕의 공식적 언행과 주요 사건을 매일 기록하여 사초를 만들었다. 그 국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새 왕은 전왕(前王)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 실록청을 세웠다. 이 실록청은 사초에 담긴 내용을 취사선택해 실록을 만든 후 해산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은 전왕의 묘호(廟號)를 붙여 '○○실록'이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보니 『철종실록』이 고종 때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 ⑤ 3 한편 정변으로 왕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뒤를 이은 국왕이 실록청 대신 일기청을 설치하여 물러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을 '○○○일기(日記)'라는 명칭으로 정리해 간행했다. 인조 때 『광해군실록』이 아니라 『광해군일기』가 간행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일기'는 명칭만 '실록'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뿐 간행 과정은 그와 동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된 것이다. 『단종실록』은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단종은 계유정난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 노산군으로 불렸고, 그런 이유로 세조 때 『노산군일기』가 간행되었다. 그런데 숙종 24년(1698)에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된 후로 『노산군일기』를 『단종실록』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④ 4 조선 후기 봉당 간의 대립은 실록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라는 봉당이 등장한 이래,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과 인조 때까지만 해도 봉당 간 대립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 현종, 숙종이 연이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봉당 간 대립이 심해졌다. 효종 때부터는 집권 봉당이 다른 봉당을 폄훼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실록을 수정해 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정된 실록에는 원래의 실록과 구분해 '○○수정실록'이라는 명칭을 따로 붙였다.

- ① 『효종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이 간행했을 것이다. → 효종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이 효종실록 간행을 위한 실록청을 세움
- ② 『노산군일기』는 숙종 때 설치된 일기청이 간행했을 것이다. → 노산군일기는 세조 때 간행됨.
- ③ 『선조수정실록』은 광해군 때 설치된 실록청이 간행했을 것이다. → 수정실록은 효종(광해군보다 더 뒤에 집권) 이후부터 간행됨
- ④ 『고종실록』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 고종은 철종 이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포함 X.
- ⑤ 『광해군일기』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 일기도 포함됨

문 3.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행언나-35

영혼이 불멸하냐는 질문에 어떤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정의로움, 아름다움, 선함과 같은 ㉠ 형상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다. 즉, 정의 그 자체나 선함 그 자체는 물질이 아니다. 그는 이런 사실로부터 ㉡ 이성(이성)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끌어낸다. ㉢ 형상이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면,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결코 형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반면 이성과는 달리 육체는 물질적 대상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성이 비물질적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물질적 대상인 육체가 죽음으로 소멸해도 ㉣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철학자는 ㉤ 이성과 영혼은 같다는 것, 그리고 ㉥ 만약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고 형상이 불멸한다면, 이성 역시 불멸한다는 것으로부터 영혼의 불멸성을 이끌어낸다.

<보 기>

㉠ 이성이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 ㉠과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 도출됨

㉢ 오직 불멸하는 이성만이 비물질적이라는 것이 전제되면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 도출됨 (㉡ 전제해야 됨)

㉤ 불멸하는 것만이 불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면 ㉤과 ㉥으로부터 ㉣이 도출된다. → 도출됨

㉠ ㉡

㉢ ㉣, ㉤

㉤ ㉠, ㉡, ㉤

㉡ ㉢

㉣ ㉡, ㉤

1. ㉠ ㉡ ㉤

∴ 물질적인 것 → ~형상 이해.

⇔ 형상 이해 → ~물질적인 것

이성: 형상 이해

∴ 이성: ~물질적인 것 (㉡)

㉢. ~불멸 이성 → ~비물질적

⇔ 비물질적 → 불멸 이성

이성: ~물질적 = 비물질적 (㉡)

∴ 이성: 불멸

㉤. ~불멸 → ~불멸 이해

⇔ 불멸 이해 → 불멸

㉤의 전제 (이성: 형상 이해, 형상 불멸) 충족

따라서 불확실하므로 후제(이성: 불멸) 충족

따라서 불확실함.

∴ ㉣ 도출 됨

문 4. 다음 <표>는 일제강점기 8개 도시의 기간별 물가와 명목임금 비교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22

<표 1> 일제강점기 8개 도시의 물가 비교지수

기간 \ 도시	경성	대구	목포	부산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1910 ~ 1914년	1.04	0.99	0.99	0.95	0.95	1.05	1.06	0.97
1915 ~ 1919년	0.98	1.03	0.99	0.96	0.98	1.03	1.03	1.00
1920 ~ 1924년	1.03	1.01	1.01	1.03	0.96	0.99	1.05	0.92
1925 ~ 1929년	1.05	0.98	0.99	0.98	0.98	1.04	1.05	0.93
1930 ~ 1934년	1.06	0.96	0.93	0.98	1.06	1.00	1.04	0.97
1935 ~ 1939년	1.06	0.98	0.94	1.01	1.02	0.99	1.02	0.98

※ 기간별 각 도시의 물가 비교지수는 해당 기간 8개 도시 평균 물가 대비 각 도시 물가의 비율임.

7. → 낮

→ 낮

<표 2> 일제강점기 8개 도시의 명목임금 비교지수

기간 \ 도시	경성	대구	목포	부산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1910 ~ 1914년	0.92	0.83	0.89	0.96	1.01	1.13	1.20	1.06
1915 ~ 1919년	0.97	0.88	0.99	0.98	0.92	1.01	1.32	0.93
1920 ~ 1924년	1.13	0.93	0.97	1.05	0.79	0.96	1.32	0.85
1925 ~ 1929년	1.05	0.83	0.91	0.98	0.95	1.05	1.36	0.87
1930 ~ 1934년	1.06	0.86	0.84	0.96	0.96	1.01	1.30	1.01
1935 ~ 1939년	0.99	0.85	0.85	0.95	1.16	1.04	1.10	1.06

※ 기간별 각 도시의 명목임금 비교지수는 해당 기간 8개 도시 평균 명목임금 대비 각 도시 명목임금의 비율임.

<보 기>

- ㄱ. 경성보다 물가가 낮은 도시는 '1910 ~ 1914년' 기간에는 5곳이고 '1935 ~ 1939년' 기간에는 7곳이다.
- ㄴ. 물가와 명목임금 모두가 기간별 8개 도시 평균보다 매 기간에 걸쳐 높은 도시는 한 곳뿐이다.
- ㄷ. '1910 ~ 1914년' 기간보다 '1935 ~ 1939년' 기간의 명목임금이 경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은 감소하였다.
- ㄹ. '1920 ~ 1924년' 기간의 명목임금은 목포가 신의주의 1.2배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ㄹ. $0.97 \times 1.2 \uparrow 0.79$
 $0.96 \times 1.2 \downarrow 0.8$

= 비교지수가 1 초과 → 청진 only

→ 기간별 비교는 하지

문 5. 다음 <표>는 2018년 A ~ C 지역의 0 ~ 11세 인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자가-26

<표 1> A ~ C 지역의 0 ~ 5세 인구(2018년)
(단위: 명)

지역 \ 나이	0	1	2	3	4	5	합
A	104,099	119,264	119,772	120,371	134,576	131,257	729,339
B	70,798	76,955	74,874	73,373	80,575	76,864	453,439
C	3,219	3,448	3,258	3,397	3,722	3,627	20,671
계	178,116	199,667	197,904	197,141	218,873	211,748	1,203,449

<표 2> A ~ C 지역의 6 ~ 11세 인구(2018년)
(단위: 명)

지역 \ 나이	6	7	8	9	10	11	합
A	130,885	124,285	130,186	136,415	124,326	118,363	764,460
B	77,045	72,626	76,968	81,236	75,032	72,584	455,491
C	3,682	3,530	3,551	3,477	3,155	2,905	20,300
계	211,612	200,441	210,705	221,128	202,513	193,852	1,240,251

※ 1) 인구 이동 및 사망자는 없음.
2) 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보 기>

2세

3세

ㄱ. 2016년에 출생한 A, B 지역 인구의 합은 2015년에 출생한 A, B 지역 인구의 합보다 크다.

ㄴ. C 지역의 0 ~ 11세 인구 대비 6 ~ 11세 인구 비율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높다. 이오(∵ 2017년 1세 = 2018년 2세 독)

ㄷ. 2018년 A ~ C 지역 중, 5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5세 인구 대비 0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일하다.

ㄹ. 2019년에 C 지역의 6 ~ 11세 인구의 합은 전년대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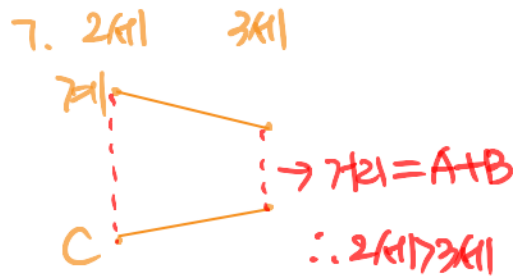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여사김: $A+B=계-C$

ㄷ. $\frac{A}{131} < \frac{B}{769}$

따라서 $\frac{27}{131} > \frac{61}{769}$
(20%↑) (10%↓)

ㄹ. 2018년 5~10세 > 2018년 6~11세
차이부분: $\frac{5세}{3,627} > \frac{11세}{2,905}$

문 6. 다음 <보고서>는 2017년 ‘갑’국의 공연예술계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25

<보고서>

7. 2017년 ‘갑’국의 공연예술계 관객수는 410만 5천 명, 전체 매출액은 871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100 % 이상 성장한 것으로, 2014년 이후 공연예술계 매출액과 관객수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8. 2017년 ‘갑’국 공연예술계의 전체 개막편수 및 공연횟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월간 개막편수가 전체 개막편수의 10 % 이상을 차지하는 달은 3월뿐이고 월간 공연횟수가 전체 공연횟수의 10 % 이상을 차지하는 달은 8월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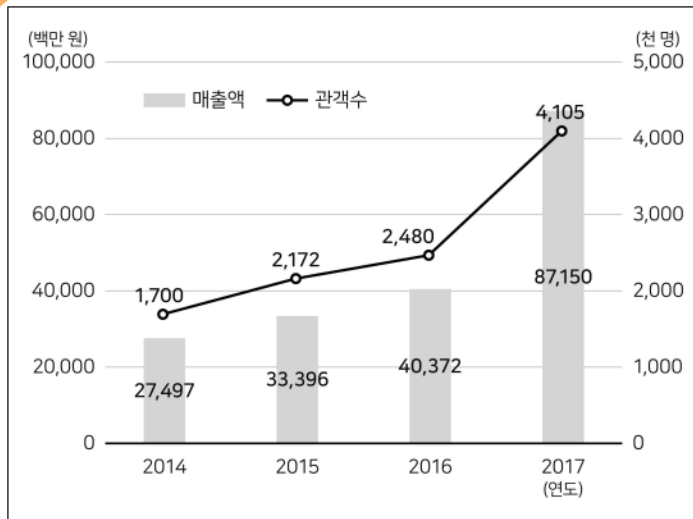
9. 반면, ‘갑’국 공연예술계 매출액 및 관객수의 장르별 편차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기준 공연예술계 전체 매출액의 60 % 이상이 ‘뮤지컬’ 한 장르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관객수 상위 3개 장르가 공연예술계 전체 관객수의 90 %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2017년 ‘갑’국 공연예술계 관객수를 입장권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3만 원 미만’ 입장권 관객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가장 비싼 ‘7만 원 이상’ 입장권 관객수의 3.5배 이상이었다.

여사건 : 나머지 장르 10% ↓ ?

<보 기>

ㄱ. 2014 ~ 2017년 매출액 및 관객수



ㄴ. 2017년 개막편수 및 공연횟수

(단위: 편, 회)

구분	개막편수	공연횟수
1월	249	4,084
2월	416	4,271
3월	574	4,079
4월	504	4,538
5월	507	4,759
6월	499	4,074
7월	441	5,021
8월	397	5,559
9월	449	3,608
10월	336	3,488
11월	451	3,446
12월	465	5,204
전체	5,288	52,131

10% → 528

10% → 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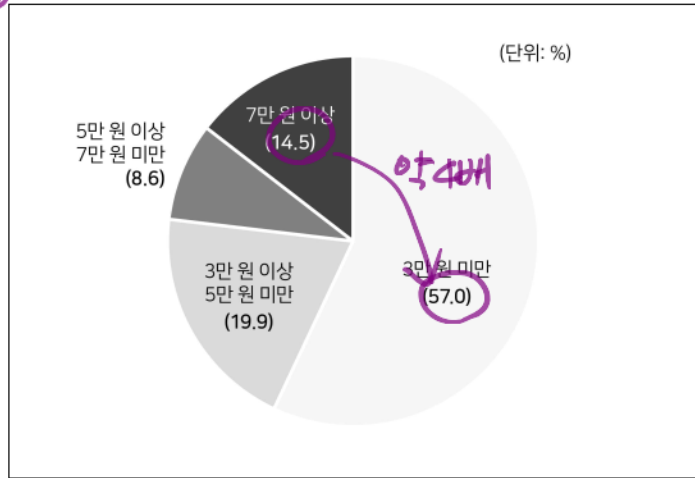
ㄷ. 2017년 장르별 매출액 및 관객수

(단위: 백만 원, 천 명)

장르	구분	매출액	관객수
연극		10,432	808
뮤지컬		56,014	1,791
클래식		13,580	990
무용		5,513	310
국악		1,611	206
전체		87,150	4,105

ㄹ. 2017년 입장권 가격대별 관객수 구성비

(단위: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포스트테스트 문제 푸는 방법

1. 단위부터 먼저 확인

2. 계산이 필요한 선지부터 먼저 확인 (수치 확인 등)

3. 계산 쉬운 선지부터 먼저 확인 (덧셈이나 뺄셈 계산 한지)

문 7. 다음 <표>는 2015 ~ 2019년 '갑'국 음식점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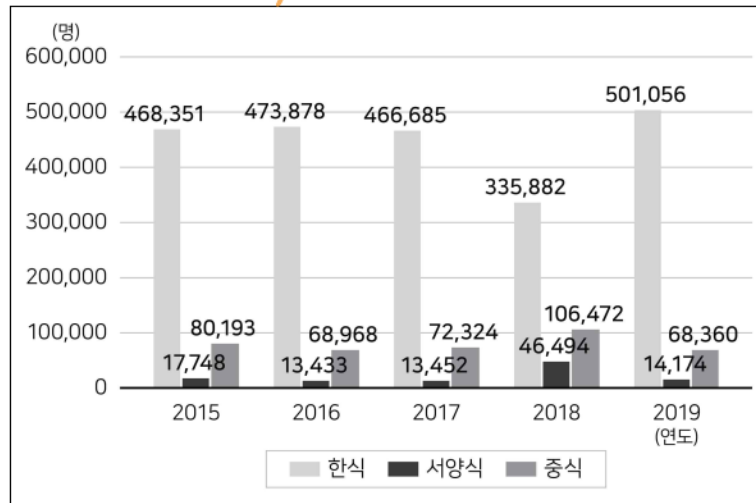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2020행자나-15

<표> '갑'국 음식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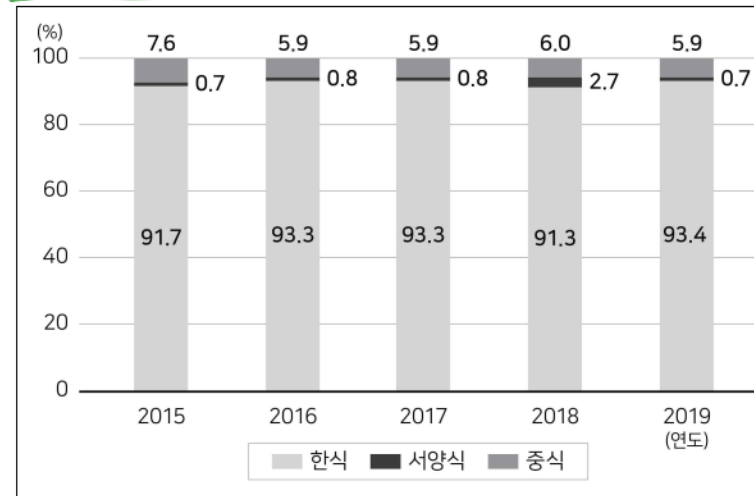
(단위: 개, 명, 억 원)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 업 체	한식	157,295	156,707	155,555	158,398	159,852
	서양식	1,182	1,356	1,306	4,604	1,247
	중식	13,102	9,940	9,885	10,443	10,099
	계	171,579	168,003	166,746	173,445	171,198
종 사 자	한식	468,351	473,878	466,685	335,882	501,056
	서양식	17,748	13,433	13,452	46,494	14,174
	중식	80,193	68,968	72,324	106,472	68,360
	계	566,292	556,279	552,461	488,848	583,590
매출액		67,704	90,600	75,071	137,451	105,603
부가가치액		28,041	31,317	23,529	23,529	3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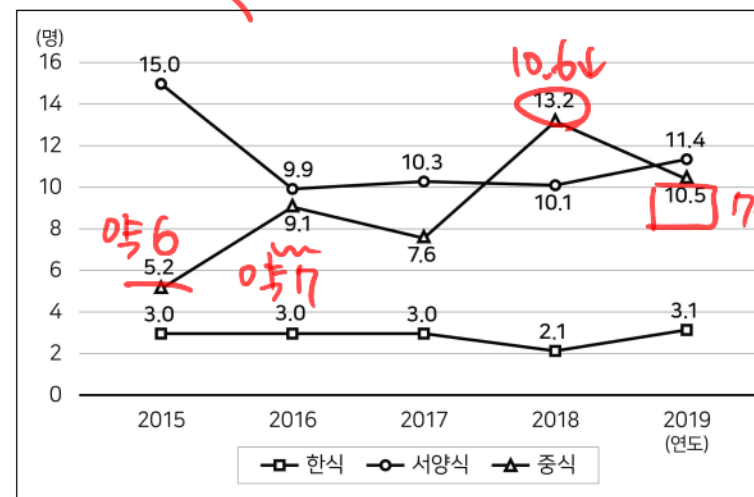
① 업종별 종사자 (e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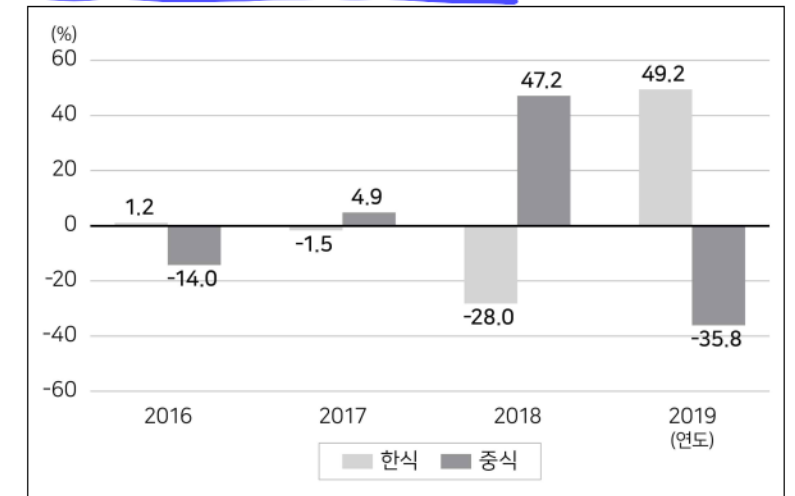
② 업종별 사업체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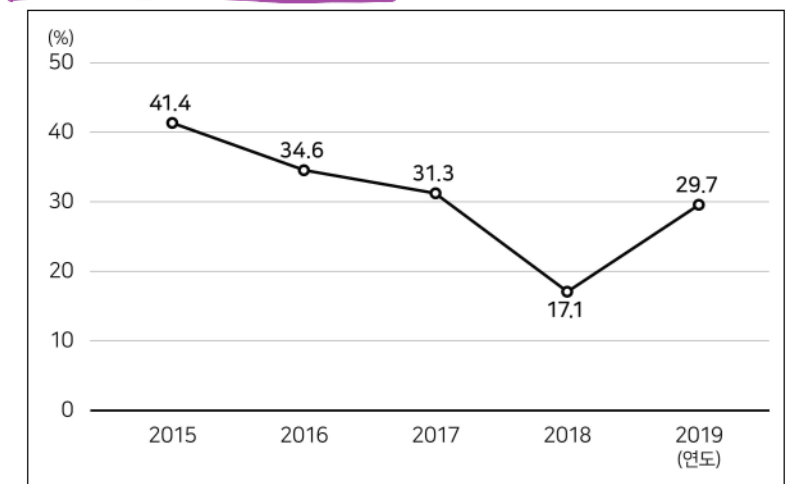
③ 업종별 사업체당 종사자



④ 한식, 중식 종사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⑤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 비율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20행상나-25

- 제00조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제00조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 ①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③ 제00조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 ⑤ ②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제00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소송구조: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비용을 미리 납입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소송승계인: 소송 중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상 황>

甲은 乙이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① 甲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 甲의 재판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만 피
- ②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능력이 있게 되었다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 → 취소피
- ③ 甲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한 경우,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乙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 → 소송구조를 받은 甲에게만 효력이 미침
- ④ 甲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甲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 부적
- ⑤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이 甲의 소송승계인이 된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유예한 재판비용을 丙에게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04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별 지원 금액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ㄱ 3인 이상 가구: 114,000원 ㄷ
지원 형태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을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ㄴ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의 자동 차감됨. 단,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ㄴ
신청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 1954. 12. 31. 이전 출생자 ㄴ 2. 2002. 1. 1. 이후 출생자 ㄷ 3. 등록된 장애인(1 ~ 6급)
신청 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 | |
|----------|--|
| 신청
서류 |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상 황>

- 甲 ~ 丙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 甲: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乙: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 丙: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보 기>

- ㄱ. 甲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ㄴ. 담당공무원인 丁이 乙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乙은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므로
- ㄷ. 丙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 ① ㄱ

③ ㄷ

⑤ ㄴ, ㄷ
- ② ㄴ

④ ㄱ, ㄷ

→ 甲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므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X.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므로

문 10. 다음 <통역경비 산정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사가
甲시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쓴 총 통역경비는? 2019행상가-09

— <통역경비 산정기준> —

통역경비는 통역료와 출장비(교통비, 이동보상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 통역료(통역사 1인당)

구분	기본요금 (3시간까지)	추가요금 (3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500,000원	100,000원/시간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600,000원	150,000원/시간

○ 출장비(통역사 1인당)

- 교통비는 왕복으로 실비 지급
- 이동보상비는 이동 시간당 10,000원 지급

— <상 황> —

A사는 2019년 3월 9일 甲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통역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고, 영어 통역사 2명과 인도네시아어 통역사 2명이 통역하였다. 설명회에서 통역사 1인당 영어 통역은 4시간, 인도네시아어 통역은 2시간 진행되었다. 甲시까지의 편도로 2시간이 소요되며, 개인당 교통비는 왕복으로 100,000원이 들었다.

- ① 244만 원

③ 288만 원

⑤ 326만 원

② 276만 원

④ 296만 원

4시간

→ 60만 × 2명

2시간

→ 60만 × 2명

)

$240만 + (10만 + 4만) \times 4명 = 296만 원$

왕복 4시간